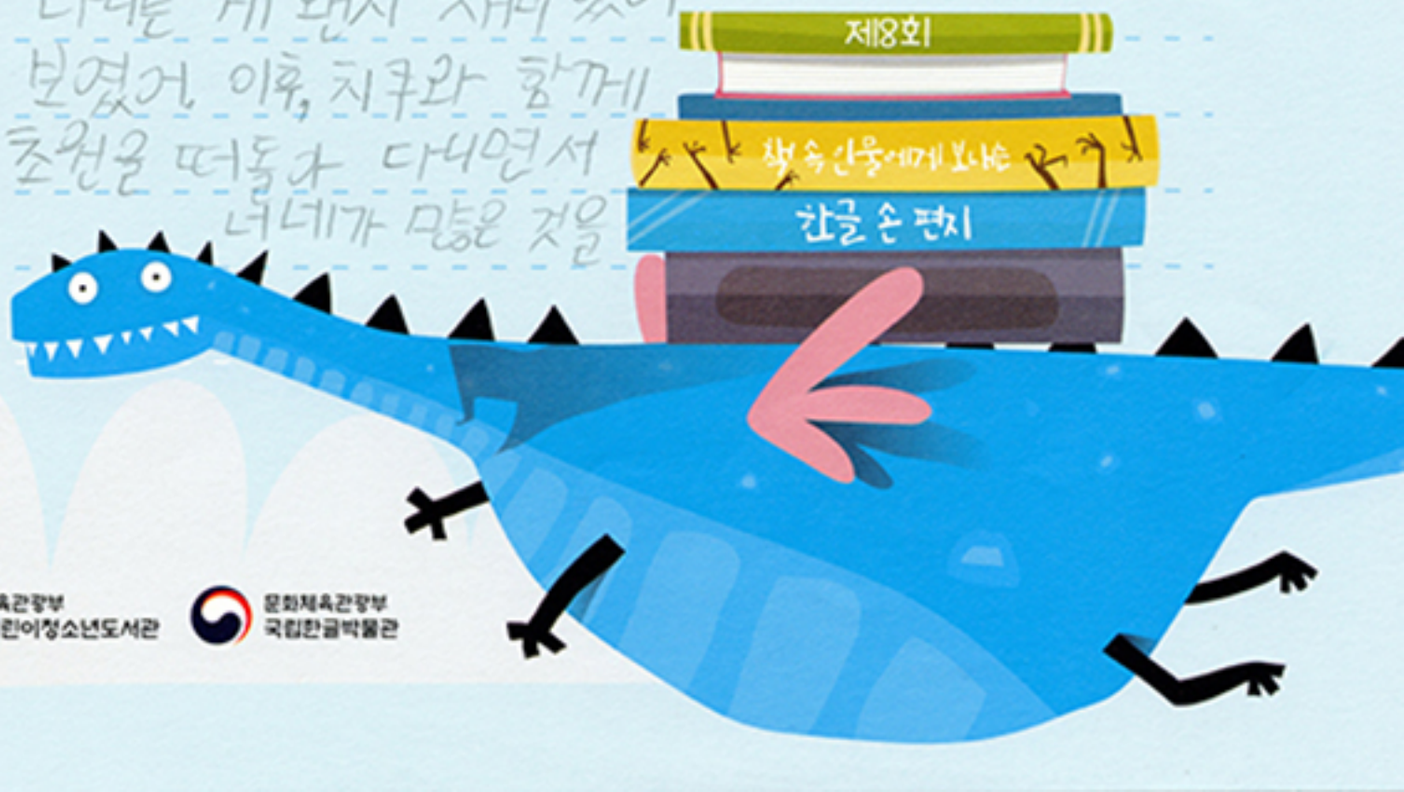
제8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혼자서 초원을 거닐고 있을 노든에게

안녕, 노든?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13살 어린이야.
나는 코뿔소를 참 좋아해. 그런 네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
처음에 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모험을 하는 내용인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의 아내와 아이를 죽인 것이
나도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 동물원에
가서도 너의 친구, 앙가부가 뿔이 잘려있는 채로
죽어있는 것을 본 네가 얼마나 고로웠을 지
상상이 안 갔어. 가족이 죽은 것을 본 충격이
남아있는데 마음을 나눈 친구까지 그런
모습으로 죽어있는 것을 보게되어 시름시름 앓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었어.
그런데 알 바구니를 물고있는 치쿠를 만나고 떠돌아
다니는 게 완지 재미있어
보였어. 이후, 치쿠와 함께
초원을 떠돌아 다니면서
너네가 만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제8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자연스럽게 배우는 장면을 보고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그런데 치쿠마저 잃고 너는 혼자서 알을 지키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을 것 같아.
슬퍼하는 너를 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어.
며칠 후, 알이 부화하고 거기에서 나온 펭귄이랑 걸어 가는 모습을 보며 네가 외롭지 않도록 치쿠가 새 가족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에 알에서 나온 펭귄과 얼굴을 맞대고 헤어질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설렘하기도 했어.
이제는 오서 책 제목이 긴긴밤인지도 알 것 같아. 슬프거나 심심할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든.. 훗날 너와 알에서 나온 펭귄이 다시 만났을 때는 긴긴밤을 그동안 서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주는 즐거운 밤으로 만들길 바라. 그리고 알에서 나온 펭귄에게 멋진 이름이 생겼기를...바 그럼 안녕!

2022.8.9

— 모든이 행복하길바라는 10살 어린이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